

# “37년 흘렀지만 목포 민주화 시위 아직도 생생”



## 세상과 소통하는 ‘뉴스활용교육’ 교사연수 언론진흥재단광주지사·전남도교육청 공동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지사(지사장 기세민)는 지난 20일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주최로 광주 무등중학교 세미나실에서 ‘세상과 통하는 교육, 행복한 수업만들기’ 교사연수를 실시했다.

광주·전남지역 중등교사 51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는 세상과 소통하고 삶과 연결하는 다양한 배움중심 수업방법이 제시된 눈길을 끌었다.

서울 명일중 김선희 교사는 ‘더 넓은 세상으로-시사독서 전략’ 강의를 통해 신문의 칼럼을 활용한 시사독서 방법을 소개했다.

또 고영애 북경고 교사는 ‘세상과 소통하는 힘-토론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NIE 토론 방법을 소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수에 참석한 조미옥 영암 신복중 교사는 “시사독서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해 준 유익한 연수였다”며 “토론 수업 역시 학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모형을 실습중심으로 진행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전남도·인구보건협회, 저출산 극복 연대회의



전남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최근 전남도청에서 30개 기관·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전남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제공〉

## 광주시 동구 ‘기능별 봉사단’ 발대식



광주시 동구(구청장 김성환)는 최근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추진을 위한 ‘기능별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광주 동구청 제공〉

## 사비 들여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념비 세운 최건 시인

“5·18 취재수첩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과 금혼식(결혼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등재비를 세웠습니다. 벌써 3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어제의 일처럼 생생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에(옛 전남일보 1964년) 출신 최건 시인은 최근 의미 있는 이벤트를 가졌다. 전북 장수의 자택 뒤뜰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취재수첩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등재비를 건립하고 기념식을 치른 것.

이날 등재비 기념식에는 부인 조한금 여사와 성당 교우들을 비롯 평소 가깝게 지내는 지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기록유산 등재비 비(碑)를 건립해 되새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내와의 50주년 결혼도 빼놓을 수 없는 경사였다.

최 시인은 “취재 수첩의 세계유산 등재(2011. 5. 25)도 남다른 감회를 주지만, 당시 자신의 취재과정을 지켜보며 생생한 기록한 ‘아내의 일기’가 동시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순천이 고향인 그는 유년과 청소년기를 목포와 군산, 인천 등지에서 보냈다. 아버지 직장을 따라 옮기다보니 학창시절은 전학의 연속이었다. 이때의 경험의 그의 내면에 문화적 감성을 드리웠을 것 같다.

사회인으로서의 첫발을 언론사 기자로 시작했다. 64년 목포일보사 기자로 입사해 얼마 후 동아일보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최 시인은 “목포 주재기자로 있을 때 광주 5·18이 일어났다”며 “당시 목포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목포대를 중심으로 전개됐었다”고 말했다.

##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 취재수첩·아내 일기 동시 등재

### 언론통폐합으로 해직...詩作 활동

“대부분 사람들은 5·18의 발화점을 전남대 정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목포에서였습니다. 80년 5월 초 인권운동가였던 문익환 목사가 목포로 내려와 기록도 인사들을 만나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협의가 이뤄졌어요.”

물론 최 시인은 그 자리에 증인 자격으로 있었다. “목포에서도 광주 못지않게 민주화 투쟁 열기가 맹렬히 타올랐어요.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당시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목포 일원에서 벌어졌던 민주화 시위와 투쟁 상황을 취재한 수첩은 광주5·18기록관에 ‘아내의 일기’와 함께 보관돼 있다.

그는 80년 11월 신춘문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해직된다. 이후의 삶이 순탄치 않았으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즈음 마음의 응어리를 시로 풀었다. 1983년 ‘시문학’에 시가 추천돼, 시인으로서의 지평을 넓혔다.

이번 등재비 기념식은 아울러 조촐한 출판기념회도 겸한 자리였다. 최 시인은 최근 이색적인 시집을 펴냈다. ‘제5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시문학사)는 그의 문학적 지향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집이다.

책에는 ‘차이코프스키 이야기’, ‘루체른 호에서 베토벤을’, ‘엘레지풍의 콘트라베이스’, ‘어느 떠돌뱅이의 사계’ 등 모두 67편의 음악시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념비’ 앞에서 최건 시인과 그의 부인 조한금씨가 환하게 웃고 있다.

이 수록돼 있다. 그는 “교향곡과 시를 관련연에 결합시켜 ‘교향시’라는 새로운 형식의 음악을 ‘장안해냈다’고 밝혔다.

“음악시(music poem)는 시와 음악, 서로 다른 두 예술의 장르끼리 한 데 어우러져 ‘한 뭉치’가 되는 예술이지요. 시집에는 목직하고 심오한 철학적 가치보다는 슬픔과 기쁨 등 정서적 분위기를 담았어요.”

그는 젊은 시절 고 김충삼·김영태 시인, 그리고 마중구 시인 등과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았다. 선배 시인들의 작품에 음악용어가 시 제목으로 쓰이고, 감각적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음악시집을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의 지아코모 푸치니와 그리고 ‘제5계절’ 제목 자체가 되어준 장편소설 ‘대양은 또다시 떠오른다’의 에니스트 헤밍웨이 두 분께 바칩니다.”

인생만년이지만 그는 여전히 ‘문학청년’으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젊은 시절 이미 그는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문학을 지망하는 청년에게’ 속의 수신자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대학교 입시를 목전에 두고서도 고전문학실이며 영화관을 매일매일 들르다시피 했지요.”

그는 지금 거주지를 생의 마지막 거처라고 생각한다. 오래 전 인연이 있던 이곳에 2009년 귀촌을 했다. 시인은 자신의 산문집 ‘겨울나무가 던지는 그림자’(문경출판사)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세월은 강물처럼 보이지 않는 곳까지 흘러 간다고 했습니다. 세월을 때를 묻히면서 묶은 때를 뒤아내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합니다. 세월의 도도한 강줄기-비록 도도한 중류나 하류의 월출기가 아니라 비록 하잘 것 없는 미미한 지류일지언정 묶은 때와 잔 때를 펼쳐내는 아름다운 강줄기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성천기자 skypark@

## 광주도시철도공사 성과금 400만원 백혈병소아암돕기 기부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예산성과금으로 사랑 나눔을 펼쳐 눈길을 모으고 있다. 공사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옥동차량기지에서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 예산 절감 공로로 광주시로부터 수여받은 예산절감 성과금 400만원 일 전액을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기부했다.



〈사진〉으로 37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연구노력을 통한 비용절감이 적극 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김정은 신한은행 차장 문화보듬 1000번째 기부자 됐다

광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한 달에 1만원씩 정기 기부하는 광주문화재단 ‘문화보듬10000 운동’의 1000번째 기부자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신한은행 광주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는 김정은씨(40·사진).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에서 많은 아이들이 미디어아트를 체험하는 등 광주가 문화예술로 풍족해지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응원하다가 이번엔 ‘문화보듬10000운동’에 동참하게 됐다. 김씨는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차라리 차를 사서 아이들의 문화적인 삶을 가꾸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영희기자 penfont@kwangju.co.kr

## 조대여중 유휴공간 활용 ‘명상의 숲’ 준공식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교장 김종익)는 학교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유휴 공간을 교육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명상의 숲’을 조성, 최근 준공식을 열었다.

명상의 숲은 광주 동구청과 조대여중이 지난 3월 업무 협약을 통해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내 유휴 공간에 영



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용자 중심의 숲을 조성했다”며 “다양한 나무들이 각자의 속도대로 성장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명상의 숲에서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강한 대중음악평론가 내일 조선대서 특강

강한 대중음악평론가는 24일 조선대 서석실에서 열리는 문화초대석 강사로 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 강씨는 ‘정신꽃메’라는 독립영화집 단에서 ‘외 몸의 나라’, ‘파업전야’ 등을 만들었고 25년간 한국 대중음악에 관한 비평을 썼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조용대(서광주세무서 근무)·곽혜숙씨 장남 우진군 이희만·원미자씨 장녀 은솔양=28일(일) 낮 12시30분 서울 강남 더채플앳칭당 3층 커피티저.

▲하태욱(전 여수경찰서장)·김태연씨 장남 일근 장윤식·김오례씨 장녀 수희양=6월 3일(토)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지평동 라봉웨딩홀 2층 모던홀.

▲신영숙씨 장남 김효민군 안효윤·박용자씨 딸 지미양=6월 3일(토) 낮 12시 30분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

### 등문회

▲인성고 총동문회(회장 노익근) 가족 한마당 ‘동행’=28일(일) 오전 9시 광주 인성고등학교 잔디구장.

### 향우회

▲재광영암군향우회(회장 조성희) 제

67회 정기총회=25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남구 백운동 프라다호텔 3층 에메랄드홀 062-654-6600. 문의 박미석 사무총장 010-3640-3308, 위성운 총무국장 010-3604-9292.

###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최향철 전실용음악교수 강좌=색소폰, 기타, 재즈 피아노 등 무료강의(초보환영).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평생교육원, 매주 일요일 오후 2시~4시 강의. 문의 010-4617-6078.

▲무료자선봉사는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

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모상담, 임양상담 24시간, 미혼양육모 지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원, 심리상담센터 운영 062-222-9349.

▲굿모닝보정기 광주서구점 무료 청력검사는 노인 대상 방문 무료 청력검사, 청각장애인 상담, 가동 불편시 가정방문 청력검사 문의 062-375-9275.

### 모집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중장년세대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 참가자=스마트워크

&오피스(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중년들의 몸퍼기운동(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생애설계 이해와 방향(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광주 광산구 목운동 232-2, 광주시공무원교육원 4층 강당, 문의 062-600-5242.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청년부 회원=‘송조돈종’과 유네스코 세계인문문화유산 송묘·사직대제, 조선왕조 500년 문화·역사를 함께할 전주이씨 또는 완산이씨, 문의 광주·전남청년이화회장 이철환 010-3601-142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세탁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타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심체제가 정기요양기관 회원=장기

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려,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정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적),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 부음

▲류호씨 별세 일·은영씨 형제상=발인 24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6분향소 062-231-8906.

<b>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b>	
<b>201호 故김양삼  님(여/85세)</b> 子/子婦 : 이태규/노경희, 승용/김윤선, 승태/안연자 女/婿 : 이덕자/강재규, 덕삼, 덕남/한병덕, 선덕/최성순 •발 인 : 5월 23일 •장 지 : 곡산목사동 •연락처 : 227-4381	<b>301호 故김봉수  님(남/86세)</b> 子/子婦 : 김용승/손은자 女/婿 : 김은숙/정태욱, 영란/김재현 •발 인 : 5월 23일 •장 지 : 남평선영 •연락처 : 227-4382
<b>401호 故양향자  님(여/78세)</b> 子/子婦 : 김경권, 세근/한연화 女/婿 : 김나숙/홍경희, 경숙/김성구 夫君 : 한병석 •발 인 : 5월 23일 •장 지 : 곡산목사동 •연락처 : 227-4383	<b>402호 故문진구  님(남/87세)</b> 子/子婦 : 문인근/오영림, 인국/김지선, 차서영, 인우/정희정 女/婿 : 문선미/박현숙, 선진/박 원, 선애/이정철 未成人 : 김성순 •발 인 : 5월 24일 •장 지 : 보성문덕 선영 •연락처 : 227-4383
<b>101호 故이형훈  님(남/51세)</b> 子 : 이진호 未成人 : 김지민 •발 인 : 5월 23일 •장 지 : 화순동면 선영 •연락처 : 227-4000	<b>102호 故이승수  님(남/56세)</b> 兄弟 : 이범수, 상수, 영란 •발 인 : 5월 23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5
<b>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b> <b>금호 장례식장</b> 062-227-4000 대표이사 구제길 www.mykumho.com	